

# 과학기술 사회에서 혁명적 변화를 위한 기독교적 접근

— 리차드 솔(Richard Shaull)의 ‘혁명(revolution)’ 개념을  
중심으로—

이민정 \*

- I. 문제제기
- II. 과학 기술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시도들
  - 1.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운동의 한계점과 시사점
  - 2. 맑시즘의 한계점과 시사점
  - 3. 니체의 생철학의 한계점과 시사점
  - 4. 현대의 주장들에 대한 비판
  - 5. 철학적 시도들의 귀결점으로서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도약(leap)
- III. 혁명적 상황에 대한 현대 기독교의 태도와 문제점
  - 1. 기계적 신(a deus ex machina)
  - 2. 기독교 세력으로서 보수적 입장의 기독교
- IV. 기독교가 혁명적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 1. 혁명적 상황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
  - 2. 혁명적 상황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현실주의
- V. 혁명적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요구
- VI. 혁명적 목표에 기독교가 기여할 수 있는 점
- VII. 맺는 말

## I. 문제제기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사회의 원동력을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

\* 숭실대학교

무방할 만큼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이러한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주요 사회활동이라는 점이 명백하다하더라도 인간의 행복에 대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르쿠제는 물질생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며 이로 말미암아 사회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체제에 재배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sup>1)</sup> 또 이 체제는 인간을 수량적인 틀에 묶어놓음으로써 결국 인간도 수량화되게 되고, 노동은 점점 더 분업화, 전문화되면서 과학 기술적 사회구조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전면적으로 통합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체제가 물질적 풍요와 편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기꺼이 이 체제에 동의하고 복종하는 형태로 그 지배체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sup>2)</sup> 이제 우리는 기술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학기술 사회가 한 편으로는, 계산하는 이성의 측면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이 체제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을 비인간화, 비인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술 사회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잃지 않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는 없겠는가? 이런 기술사회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새로운 현실(new reality)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1) Herbert Marcuse, *Der eindimensionale Mensch : Studien zur Ideologie der fortgeschrittenen Industriegesellschaft*, p.168.

2) Herbert Marcuse, *Der eindimensionale Mensch*, p.168-173.

리차드 쇼(Richard Shaul)은 우리가 전례 없는 양극단 사이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sup>3)</sup> 그것은 사회가 어떤 형태로 제도화가 되면 현재 있는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이득을 누리는 사람(기득권자)과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열망하는 사람과의 양극단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부유한 국가, 가난한 국가로 나뉘고, 계층도 부유계층, 빈곤계층으로 나뉜다. 즉, 그런 집단들 사이에, 인종들 사이에, 계급들 사이에, 자신들의 위치가 열등한 위치라는 점을 깨우친 사람들과 새로운 질서에 자신들의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겠다는 혁명적 상황이 오고야 만다는 것이 리차드 쇼의 입장이다.

따라서 리차드 쇼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현대 사회를 혁명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체제를 유지시키는 지배의 주체는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면서 그 자체의 역동성에 따라 과학 기술의 합리성의 완성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속성을 지닌 체제 자체이다. 이 체제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도 지배의 주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체제에 기꺼이 종속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서 체제의 변동을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인간의 본성 중에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은 되도록이면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기득권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일,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evolutionary)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로 바꿀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강제력을 동원하게 되는 그런 혁명적 상황(revolutionary)에 봉착하게 되며 그것은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3) Richard Shau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in *Social Ethics: Issues in Ethics and Society*, Gibson Winter, London, 1968, p.234.

혁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혁명에 필요한 새로운 사상의 카테고리를 찾아야 한다.<sup>4)</sup> 물론 기술 사회가 우리에게 끼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한 철학의 운동이 있었다. 그것으로 실존주의, 맑시즘, 생철학, 현대의 주장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철학의 운동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종교<sup>5)</sup>는 어떠한가? 사실,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이러한 혁명적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만약 적합하다면, 우리가 과학 기술 사회 속에서 직면한 혁명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공헌할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학적 전망에서 혁명적 변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II에서는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에세이 『기술사회에서의 인간(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를 중심으로 기존의 실존철학, 맑시즘, 생철학, 현대정신분석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시도들의 한계점과 문제들을 지적한 다음 그 해결책으로서 귀착되는 종교적 입장을 살펴볼 것이며, III부터는 리차드 솔의 에세이 『기술적 견지에서 혁명적 변화(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인데, 우선 III에서는 혁명적 상황에서 현재 기독교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혁명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타진 해보고 IV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이 혁명적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다. V에서는 현재의 혁명적 상황에서 기독교에게 요구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VI에서 혁명적 목표에 기독교 정신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

4)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36.

5) 본고에서는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한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 과학 기술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시도들

앞서 살펴본 한 바, 기술 사회는 인간에게 많은 유용성 제공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잃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고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는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또 철학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텔리히는 기술 사회가 우리에게 끼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철학의 운동으로 실존주의, 맑시즘, 생철학, 현대의 주장들을 들고 있다. 그는 이 철학적 운동이 시사하고 있는 점과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1.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운동의 한계점과 시사점

텔리히는 인격(인간, personality)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사회의 비인간화시키는 힘에 대하여 거기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부르는 운동이고 그것은 적어도 백년이 되었다고 말한다.<sup>6)</sup> 이 운동은 인간성을 찾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한 투쟁이다. 이것은 두 가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인간의 인간됨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집단, 개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성을 찾기 위한 투쟁이다. 철학적 실존주의는 개인이 모든 전통과 사

---

6)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in *Social Ethics: Issues in Ethics and Society*, Gibson Winter, London, 1968, p.120.

회적 의무로부터 무규범적 결단의 자유에로 비약할(leap)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 실존주의는 개인이 주어진 문화적 지적 상황으로부터 백 년 전에 형성된 신성한 전통을 수용하는 쪽으로 비약해서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를 쥐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비약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Soren Kierkegaard)가 말하고 있는 비약이라는 것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이 비약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가 비약하는 순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자유에로의 그의 비약은 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필연성(합리적인 필연성)과 자유의 비약 사이의 갈등 속에는 이미 기술사회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비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예측으로 끌려간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철저히 현실주적으로 직면할 경우에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술사회 속에서의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제의 상황에서 비약하여 나오기는 했으나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문제를 일으킨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털리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약을 말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2. 맑시즘의 한계점과 시사점

맑스(Karl Marx)도 키에르케고르에 못지않게 그 문제를 지적해 내고 있다.<sup>7)</sup>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맑스가 키에르케고르보다 훨씬 더 분명

하게 보았다. 키에르케고르가 사고의 체계를 문제 삼고 이 사고의 체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맑스는 현대 사회의 실재(reality)를 문제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맑스의 해결책은 사고의 구조를 바꾸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실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맑시즘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바꾸어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책임은 사고의 체계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실재의 문제였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맑스의 주장이다. 산업 사회에 있어서 경제가 비인간화시키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맑스는 그의 자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가령, 소외문제, 노동가치설 등이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에 중심을 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 구조를 겨냥한 것이었다. 맑시즘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직시해서 보고 새로운 실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높이 살만한 일이다. 그러나 맑시즘의 한계점은 키에르케고르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그 힘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드러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대응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세계, 즉 브로조아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내에서 개혁(reform)<sup>8)</sup>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적으로 인간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이다.<sup>9)</sup> 다른 하나는 미래를 위협하는 인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먼 미래에 인간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 방법이다.<sup>10)</sup> 맑시즘에 의하면 그 방법이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한 혁명적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점진

7)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p.122.

8) 개혁(reform)은 혁명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을 말한다.

9)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p.124.

10)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P.124.

적인 방법이나 맑시즘이 추구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나 둘 다 문제가 있으며, 기술 사회의 형태는 이미 미래의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된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법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맑시즘이 말하는 것과 같은 비인간화에 대한 열정적 투쟁으로 시작한 운동이 모든 역사 속에서 비인간화의 위대한 힘들 중의 하나로 바뀌는 혁명적인 방법도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과학기술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혁명적 상황은 혁명이 불가피하지만, 그 혁명의 결과가 맑시즘과 같이 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또 그 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실재가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3. 니체의 생철학의 한계점과 시사점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도 현대 기술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현대 기술 사회의 전개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경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철학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니체의 항거이다. 니체는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문명의 허무주의에 대항에서 싸운다.<sup>11)</sup> 니체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 운동은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비인격화시키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를 키에르케고르나 맑스보다도 더 깊이 있게 보았다. 즉, 니체의 생철학의 초점은 기술 사회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이 생산과 소비의 한 부속품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것이 중심이 된 자아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11)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p.125.



서 그 의지는 무를 의지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의지의 새로운 시작, 그것만이 생명을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지를 니체는 권력의지라고 했다.<sup>12)</sup>

그러나 니체의 생철학에서의 한계점은 이것이 오히려 이 의지를 지지하는 사람의 완전한 인간성의 파괴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니체의 권력의지는 생명의 이름으로 비인격화된 사물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인데,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강조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전에 늘렸던 모든 충동들, 가령 권력충동, 쾌락충동, 파괴충동과 같은 것을 무제약적으로 실현하는 쪽으로 니체의 권력의지의 방향이 잡혀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니체의 생명의 의지가 권력의 의지로 설명이 되면서 오히려 더 극심한 방향으로 악화되고 만다<sup>13)</sup> 이러한 니체의 생철학은 이성적인 합리성에 반하는 생명의 이름으로, 쾌락충동, 파괴충동과 같은 일들이 자행이 되고 이것은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4. 현대의 주장들에 대한 비판

먼저 실존주의의 현대적인 표현은 샤르트르(Jean-Paul Sartre)인데, 샤르트르가 지향하는 것도 휴머니즘이다. 그런데, 샤르트르가 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샤르트르는 인간의 행동을 선규정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구체적으로 인간 자신이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내린 결단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어떤 규범도 없는 휴머니즘을

12)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p.125.

13) 이러한 이유로 니체가 히틀러의 사상에 동조한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다.

14) 이러한 맥락에서 샤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을 규정한다고 말한다. 즉, 인간의 본질은 이러이

지향하게 된다. 샤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의 메시지이다.<sup>15)</sup> 따라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의지하는 의지, 결정을 위한 결정의 의지, 어떤 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위해서 결정하는, 어떠한 의무나 어떠한 헌신도 배제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자유만 남는다.

다음으로 현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심리 치료적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서는데 무엇보다도 특히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나아간다. 그런데 만일 이런 해답이 받아들여진다면, 심리 분석한 사람들은 심리적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를 다루는 신부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신요법으로서의 정신요법이 아니라 환자나 분석자가 다 함께 동참하는 심리적 영역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힘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 5. 철학적 시도들의 귀결점으로서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도약(leap)

이상으로 과학기술사회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응했던 철학의 운동들, 즉 실존주의, 맑시즘, 생철학, 현대의 주장들을 고찰하고 그 한계점과 시사점을 지적해 보았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철학, 맑시즘, 니체의 생철학, 현대의 주장들을 통해서 해결책으로 귀결되는 것은 기독교에서 교회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술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인간의 인간됨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사회의 비인간화에 대해서 비판한 실존철학, 맑시즘, 생철학의 입장에서

---

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인간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을 선규정하는 본질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완전무결한 자유로움 속에서의 자기 결단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그의 희곡이나 글 속에서 완전한 절대적인 자유를 이야기한다

15)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p.127.

틸리히는 기술 사회의 인간의 비인간화를 지적하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비약(leap)’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초월을 하기 위해서는 발붙일 장소가 필요한데 실존철학이라든지, 맑시즘이라든지, 생철학은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틸리히에 의하면 그런 비약이 가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라는 것이다.<sup>16)</sup> 즉 과학적 본성, 도덕적 당위성, 거기에 종교적인 초월성 이 삼자가 결합되었을 때 사회윤리학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차드 솔은 분명 종교가 과학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 그 문제점을 다음 III에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 III. 혁명적 상황에 대한 현대 기독교의 태도와 문제점

앞서 II에서 틸리히는 분명 과학기술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독교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기독교는 왜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기독교는 분명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가 기술 사회에서 인간의 파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데 있다. 이에 대하여 여기서는 틸리히가 말하고 있는 기계적인 신과 리차드 솔이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연합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교회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

16)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에 대해서 틸리히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모호성이 있기는 하다. 니버(Richard Niebuhr)는 인간에게는 이 세상적인 권력 의지 너머에 인간을 보편적으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에서 산업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 속에 참여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 1. 기계적 신(a deus ex machina)

현재 기성 교회에서, 기독교인 중 다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또, 기독교 교리를 현실에 적용할 때 현재의 직면한 상황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론적으로 그대로 고정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계장치의 신(a deus ex machina)이라고 한다.<sup>17)</sup> 그것은 모든 문제가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신을 말하거나 신의 뜻은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을 말한다. 이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여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으로 현상을 바꾸고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과학기술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혁명적 상황이란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과정'이란 수시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혁명적 상황이란 순간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건인데 어떤 이로 하여금 구체적인 현실을 다루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윤리적 책임에 대한 도식적 정의(definition)<sup>18)</sup>를 적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나 신학적인 전망은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무엇인가를 규정하여

17)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p.130.

18) 도식적 정의(definition)란 틀을 만들어서 맞다 틀렀다하는 것, 예를 들면, '기독교 윤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보니까 당신의 책임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세워 그것을 안정된 노선으로 인정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속에 소외되고 비인간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학은 매순간 문제를 제기하고 열어있어야 한다고 리차드 솔은 주장한다.

## 2. 기득권 세력으로서 보수적 입장의 기독교

혁명적 혼란에 직면하게 되면, 교회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는 집단이 되기 쉽다. 처음에 기독교는 대단히 혁명적이었고 그릇된 상황을 비판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정착이 되면서 기득권 세력과 연합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즉 기독교도 기득권자의 입장을 취하고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종교는 현상제도에 대해서 기존의 체제를 성스럽게 지켜가야 하며 거기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졌었다. 따라서 기독교는 자연히 혁명의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제국’<sup>19)</sup>의 등장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수록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어떤 부정이 있다든지 어떤 이가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내세로 돌리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내세가 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죽어서 내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현실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

19) 기독교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왕국으로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다. 그것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어떤 그리스도교를 지향하는 어떤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또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고 하면, 종교답지 않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혁명적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 IV. 기독교가 혁명적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기독교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혁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가?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현 교회의 상황은, 그것을 기독교의 근본, 즉 본질에 비추어 보면, 과연 그 근본에 충실한 것인가? 과연 기독교는 혁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하는 입장인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나 성서적으로 혁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여기서는 과연 기독교가 혁명적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기독교의 근본적 사상에 비추어 검토해 보고 혁명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의 현실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혁명적 상황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

리차드 쇼일은 성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기독교는 혁명의 와중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본래적으로 변화라는 것과 잘 맞는다고 주장한다.<sup>20)</sup> 그는 이러한 긍정을 정당화시키는 성서적 사상의 몇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고수하거나 지켜가는 것이 아닌 창조주

20)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37.

이시고 자연과 사회 전 영역을 통치하는 분이시다.<sup>21)</sup> 성서 전체를 관통해 볼 때 기독교는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 끝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시라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시다. 반 레우벤(Van Leeuwen)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는데, 즉 세상을 향한 성서적 태도는 우리의 현대적인 혁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것이다.<sup>22)</sup> 성서는 혁명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성서는 모든 제도를 신성시하는 입장을 물리치고 인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활동하시게 하신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sup>23)</sup>이다.<sup>24)</sup> 구약 성경의 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를 보면 예언서의 특징은 심판인데,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새로운 약속을 한다.<sup>25)</sup> 그의 구속적 행위는 심판을 의미

21)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37.

22)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38.

23) 메시아니즘의 신학은 인간의 삶을 인간되게 만들고 그것을 그대로 (인간의 삶을 인간된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맥락적 윤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섭리의 이론, 하나님 나라, 종말론에서 지시해주는 노선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 신경의 제 3조(“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성령”)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성령 활동을 고려한 것이다. 이 노선에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이 발견하고 활동하고 살도록 하는 모든 상황은 두 개의 왕국이 혼합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칙이나 규범과 같은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 그것은 관계요, 행위인데, 인간을 위한 기회를 지칭하는 관계이며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열어놓으시고, 미래를 향해 서 계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교제—말씀(word), 성찬(sacrament), 서로 밀접한 관계(interrelatedness)—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24) 이와 유사하게 불교에도 미륵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서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신앙이다.

25)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38.

함과 동시에 새로움의 시작이다. 바벨탑으로 이 땅에 민족을 흐트러트리시고서는 아브라함의 부름이 뒤따라왔고, 다시 흐트러트리시고 모으시고 다시 흐트러트리시고 다시 모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부수시는 것이다. 그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압제자들의 힘을 부수는 것이다. 복음서는 혁명적 하나님을 도입시켰는데 그의 의는 눌린 자를 세우고 억압하는 자를 낮추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훈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혁명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에 대해서 복음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역사의식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스라엘은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다.<sup>27)</sup> 정치적인 위기, 복잡한 사회 문화적인 문제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작업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이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경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힘을 흐트러트린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모든 안정성(기득권의 안정성)은 일소되고, 인간을 인간화시키는 투쟁이 하나의 새로운 전선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위기나 위협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역사가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거기에 동참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리차드 솔이 말하는 것은 현실 속

26)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38.

27)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은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 세계관은 역사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의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업하신다는 것이다.



에서 실현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혁명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는 하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sup>28)</sup>

## 2. 혁명적 상황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현실주의

혁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이런 부분에 기여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것이다<sup>29)</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나라(City of God)』에서 성서가 혁명적인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sup>30)</sup>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철학적으로 기록한 책이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이다. 이 책에는 두 개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이고 하나는 ‘세상 나라(Kingdom of Earth)’이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분은 되지만 둘 다 지향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양자 모두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28)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세계 속에 비인간화시키고 부정의를 조장시키는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개입해서 그것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되 그것이 또 굳어져서 하나의 왕국으로 형성되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입장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독교 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지향하고 그것에서 다시 생겨나는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큰 교회가 지상에서 번영한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야 된다. 즉, 제도화되어 굳어버리면 안된다는 말이다. 끊임없이 자꾸 변화하는 것, 그것을 리차드 쇼일은 혁명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9) 니버도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사상의 맥락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배워왔다.

30)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39.

평화를 질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질서를 통해서 평정하고 평화로운 것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인간의 세상 속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발견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서로 간의 교제(communion), 완전하게 질서 잡히고 완전히 조화로운 교제를 말한다. 즉 이것은 ‘완전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런 완전한 나라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이상’이다. 또 다른 하나의 평화는 세상 나라의 평화이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기심의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일시적이며 부분적이고 불안한 평화이다. 그것은 그 어떤 투쟁의 와중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평화를 위해서 어떤 때는 전쟁도 일삼고 인간의 교만과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어떤 사회 구조는 개혁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붕괴되기도 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권력이 필요한데 그 권력을 통해서 지상의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 권력을 다 배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룩하자하는 것은 이상주의이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상의 나라이며 지상의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인간의 권력투쟁—어떤 때는 싸우고 보다 나은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정의에 맞서기도 하는—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현실주의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기독교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현실주의는 리차드 솔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명적 상황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분명 기술사회에서 인간이 직면한 혁명적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의 기독교는 현대의 혁명적 상황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혁명적 상황에서 현재 기독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 V. 혁명적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요구

혁명적인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 스스로 적합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세속적 정신 구조가 더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체계 있는 논문 만으로는 이러한 혁명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 혁명적 상황에서 현재 기독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 윤리가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투쟁 속에 역동적으로 개입하고 성서적 신학적인 유산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화를 통해서 현장 속에서 그들과 대면하여 씨름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접근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혁명 전선의 공동체에 임재 하는 것이다. 리차드 솔은 이것을 교제(Koinonia)<sup>31)</sup>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차드 솔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명적 상황에서 기독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적 진행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이 역동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2)</sup> 현재 기독교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특별히 중산층은 혁명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의 입장은 불편하므로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기독교 신자들의 입장이 현상유지의 입장이지는 않지만, 그들

31) 교제(Koinonia)란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현장에 마주쳐서 변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32)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42-244.

이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현실 속에 부정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로서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 속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한다. 초기 단계에는 심지어 혁명에 대해서 열광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동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혁명적 상황이 되면 극단적인 입지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행위가 더 극단적인 되면, 부딪히는 양자도 극단적이 된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양자가 둘 다 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어느 쪽의 편도 들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자는 그 싸움의 전면에 설 수가 없게 되고 양 쪽으로부터 다 비난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수고 세우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그렇다고 투쟁의 가운데, 가령, ‘우리는 어떤 도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순수하다, 그러니 우리를 따라라’하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또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의 입장에서 우리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책임회피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고통이나 부정의가 횡행하는 장면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무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혁명을 증명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혁명가들은 그런 상황을 역사적 필연성의 불가피한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33)</sup>. 그러나 기독교적인 전망에서 볼 때 혁명적 과정은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기

---

33) 헤겔 철학이 이러한 입장을 반영시키고 있고 결정론적인 맑시즘이 그러하다. 결정론적 입장이란 역사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결정론이라든지 불가피적인 성격은 없어지고 만다. 다시 말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수할지도 모르지만 개입해야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역동성은 역사의 불가피한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압력과 그 압력에 대해서 인간이 대답하는 이 양자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독교적 전망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취함으로써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혁명을 절대화, 우상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34)</sup> 혁명은 제도를 새롭게 하고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의 과정과 더불어 오히려 인간을 더 비인간화시킬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위험이 필연적으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보다 더 풍부한 삶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람들은 혁명 가운데에서 창조적인 사상이나 생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반영하게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새로운 질서는 오직 그것이 변화에 개방되어있을 때에만 인간화의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을 이루고 나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혁명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것은 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개방되어 있어야만 한다. 혁명이 지향하는 목표를 근사적으로나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자기비판과 불만스러운 상황에 대한 감성 혹은 민감성이 바로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현대 혁명하는 사람들이, 즉 역사적 진행을 결정론적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샤이(Shay)의 붕기가 일어났을 때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 없이 20년이 지나는 것

34)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44-246.

을 금지하신다.”고 말하였다.<sup>35)</sup> 그것은 20년 동안 그러한 변혁이 없으면 부패한다는 뜻이다 즉, 혁명은 매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수주의와 혁명론자 사이에서 격려와 비판의 기능으로 양자를 중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다.<sup>36)</sup>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의 역동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반면, 혁명론자들은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다. 그리고 혁명가들은 인간이 완전하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과신하기 쉽다. 즉 인간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양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냉소주의에 빠져서 인간이 역사 속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주고,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이룩한 왕국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깨우쳐주는, 격려의 기능과 비판의 기능 양자를 모두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견지에서 혁명에 관련된다는 것은 창조적 힘이 될 수 있는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질서는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제약,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미래적 관점에서,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역동적인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목표나 사상과 같은 것은 금방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혁명가가 지향해야 할 바는 언제나 미래이다.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사상이나 주장, 목표를 지향하고 이룩한 뒤에는 그들 자신이 지향했던 그 주의나 주장, 목표를 배신

35)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45.

36)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46-247.

37)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47-248.

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주의 주장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데 또 다시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목표를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을 구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 VI. 혁명적 목표에 기독교가 기여할 수 있는 점

그렇다면 혁명적인 목적에 기독교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기독교의 정신이 혁명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가? 앞서 리차드 솔은 혁명에 대해서 기독교는 교제(koinonia)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차드 솔은 혁명적 상황을 인간을 인간화 시키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리차드 솔은 끊임없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활동을 인간화시키는 활동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혁명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혁명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의이다 정의는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차드 솔은 정의만으로 그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sup>38)</sup>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화해와 정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敵)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혁명가들은 적은 철저하게 응징해야한다고 말하고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입장은 화해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양대 정당 정치체제가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38)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정의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상호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리차드 쇼일은 그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기여할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을 용서, 정의, 화해,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sup>39)</sup> 우선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베풀어주는 것, 상황의 모호성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는 변화의 다른 편에서 세워지고 있고, 그것은 어떤 구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체제는 사회 속에서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외당한 계층이나 집단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화해는 투쟁과 미움의 가운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가 서로 만나고 또 그 차이를 서로 화해시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전망이 변형이 되는 것을 말한다.

## VII.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 기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혁명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혁명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리차드 쇼일의 주장을 중심으로 타진해 보았다. 혁명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지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제도를 인간화시키는 제도로 바꾸어 놓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혁명이 이끌어진 뒤에 새롭게 형성된 제도가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다시 그것을 매 순간 비판하고 또 변혁시키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으면 새롭게 형성된 제도는 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만 하고 안정된 것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그것에 대

---

39)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51.



한 지적인 정의도 전혀 내릴 수 없이 그렇게만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과정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적 윤리학에서는 어떤 목표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리차드 솔은 “인간은 언제나 사실에 입각해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이 일단 설명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불가피하게 따른다.”<sup>40)</sup>는 점을 주의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 설명이 되어 거기에 따르는 처방이 나와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처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또 끊임없이 비판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솔은 그의 에세이에서 문비(Munby) 교수<sup>41)</sup>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부수고 만드는 그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혁명적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기술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sup>42)</sup>. 전문가와 과정을 중시하는 신학자 사이에 창조적인 대화가 발전하려면 문비 교수가 제시하는 노선이 보다 더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 전망이 하나님의 인간적인 활동의 맥락 속에 정착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사실이 알려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노선에 따르면 신학은 세속적인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투쟁의 가운데로 움직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신학은 모든 과학이 다시 한 번 인간적인 상황이나 약속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순순히 따르기도 하고 비판도 하는 기능을 맡는다.

틸리히나 리차드 솔은 기독교를 통하여, 현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의

40)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p.252.

41) 문비(Munby)는 *the ideal of secular society*라는 그의 책과 “the important technical confidence”라는 그의 논문에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이것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 인간의 기획에 대한 그의 상대적인 낙관주의, 하나님의 구속적에 대한 그의 깊은 신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톨리히나 리차드 솔은 그 벗어나게 하는 어떤 길을 종교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톨리히는 실존주의, 맑스, 니체, 정신분석을 동원하여 그런 식의 문제 방식으로 비약(leap)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초월이 결국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문제까지는 되지만, 발붙일 곳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한다. 리차드 솔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을 혁명적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 혁명적 목적에 기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리차드 솔은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리차드 솔이 제시하고 있는 끊임없는 혁명을 톨리히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약(leap)’에 주목하여 연관시켜 보았다. 즉 리차드 솔이 말하는 끊임없는 혁명은 톨리히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비약과 맥이 닿아 있다. 리차드 솔의 끊임없는 혁명은 혁명이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이루어진 뒤, 당면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문제들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리차드 솔의 강조점은 매 순간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이고 제기하는 열려져 있는 자세이다. 즉 한 번의 혁명으로 안정된 상황에 안주하거나 그 혁명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세력을 위하여 혁명을 이룰 때의 주의나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한편, 톨리히가 말하는 비약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현실에서 도약해 나와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도약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 문제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톨리히의 끊임없는 도약은 리차드 솔이 말하는 끊임없는 혁명과 연관점을 가진다. 톨리히에 의하면 우리

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약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사회에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것, 즉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해 나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고범서, 『사회윤리학』, 나남, 1993.

황경식,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5.

Fukuyama F., 『역사의 종말』, 이상훈 역, 한마음사, 1992.

Gibson Winter. *Social Ethics*, London, 1968.

\_\_\_\_\_. *Elements for a Social Ethics*, New York, 1966.

Herbert Marcuse, *Der eindimensionale Mensch : Studien zur Ideologie der fortgeschrittenen Industriegesellschaft*, Darmstadt, Luchterhand, 1967.

Paul Tillich, "The Person in a Technical Society" in *Social Ethics; Issues in Ethics and Society*, Gibson Winter, London, 1968.

\_\_\_\_\_, "On peace On earth" in *Social Ethics; Issues in Ethics and Society*, Gibson Winter, London, 1968.

Richar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in *Social Ethics; Issues in Ethics and Society*, Gibson Winter, London, 1968.

Richard Shaull, "Revolutionary Change in Theological Perspective" in *Social Ethics; Issues in Ethics and Society*, Gibson Winter, London, 1968.